

더 큰 세상 함께 사는 미래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

online newsletter

탈북청소년들이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2021 Vol. 31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칼럼
02

김정원 석좌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북한배경청소년
교육지원,
돌아보고 내다보며



기획기사 1
04

팬데믹의 시대,
멘토링의 범위를
한껏 넓히자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



기획기사 2
08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도의 어려움?!
'찾아가는 진로상담'이
있습니다.
탈북학생 찾아가는
진로상담



인터뷰 1
10

조경재 작가
(HOPE 멘토)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 HOPE



인터뷰 2
13

최찬혁 교사
(인천동막초등학교)
한 걸음, 두 걸음
너와 함께
걷고 뛸 꿈 길



현장스케치
16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사상식 및 발표회
제11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



센터활동소식
18

탈북학생 교육지원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업무 담당자
협의회 등



센터발간자료
24

동음 한국어
교사용 지도서
탈북학생
교육 우수 사례집



북한배경청소년* 교육 지원, 돌아보고 내다보며

- 북한배경청소년 교육지원 방향성 탐색

성공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바퀴 메고 학원 가는” 일상을 계속해 온 아이가 있다. 대학 나와도 취직하기 힘들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고 명문대를 가야 한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아이이다. 문제풀이하는 ‘공부’ 외에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은 엄마와 자신한테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겨왔다. 한때 성적이 급상승한 적도 있으나 중간 수준에서 성적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다. 성적이 오를 때는 공부 재미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원래부터 자신이 공부를 좋아한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래보다 나이가 많으니 빨리 학교를 졸업하라는 엄마의 요구에 5학년엔 올라가자마자 6학년으로 진급한 또 다른 아이가 있다. 4학년 과정도 어려웠던 아이가 6학년 과정을 따라가기란 불가능했다. 자신도 다른 아이들처럼 공부해 보고 싶어 혼자서 유튜브로 학교 수업 내용을 다시 들어보곤 했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 공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 공부가 이제 망하겠구나” 싶어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엄마가 허락 해주지 않을 것이 뻔해 말을 못 한다.

두 아이 모두 북한배경청소년이다. 한 명은 한국에 올 때부터 학습 면에서나 생활면에서나 특별하다고 평가받던 아이고, 다른 한 명은 학습 면에서 “굉장히 무기력”한데 자신이 한국에 오기까지의 스토리를 1시간 동안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교사나 아이들을 놀라게 한 아이이다.¹⁾

북한배경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노력은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8년에는 정부 차원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었으며 다음 해 한국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²⁾ 이 센터를 가교 삼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사업을 매년 계획하여 실행해 온 역사가 어언 12년을 넘겼다.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지원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큰 그



• 김정원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림을 그럴 때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제까지 진행해 온 정책들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민해야만 하는 지점 몇 가지를 강조해 보고자 한다.³⁾

‘관계형성’ 중심으로 교사 역할 재구조화

앞의 두 아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마다 처한 상황은 너무도 다르다.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에서 가장 강조해 온 것이 개인 맞춤형 지원이고, 멘토링이 핵심 사업이 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곳이다. 아이들과의 1:1 관계 형성을 토대로 하는 멘토링을 하라고 요구 받지만 정작 교사들이 해야 하는 일의 초점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정해진 교과교육과정을 제때 이행하고 학생들의 교과 성취도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 형성’이 아이들 변화의 핵심 요인이라고 많은 관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으나 정작 교사들에게는 아이들 개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공간과 시간이 없다. 코로나19로 아이들과 거리가 멀어진 요즘엔 더욱 그렇다. 수업 내 교사-학생 상호작용도 격려되는 것이 아니라 회피된다.

이에 필요한 것은 교사 역할 초점에서의 변화다. 학급을 대상으로 정해진 교과교육과정을 이행하는 ‘교수자’에서부터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 형성’으로 교사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교사에게 학생 한 명, 한 명이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토대가 갖추어져야만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은 집단으로서의 학급을 기본 축으로 하는 교사 역할 변화 모색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학교교육에의 영향력 중심 특별지원사업 평가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1:1 관계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필요성을

공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북한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이유로 개별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북한배경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춘 지원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집단 대상의 실험적 지원이며 이 사업 결과가 향후 일반적인 한국 학교운영체제 변화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미 지적되긴 했다.⁴⁾ 그러나 대다수 특별지원사업이 그렇듯이 북한배경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들도 이제껏 일반 학교정책과는 별개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향후 특별지원사업 정책 성과 판단 기준에 그것이 일반 학교운영체제에 미친 영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특별지원사업이 취약한 집단을 위한 시혜적인 사업이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평가기준 개발과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일반적인 학교운영체제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특별한 지원을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특별지원사업이다. 시범적으로 진행해 본 특별지원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그것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학교교육 운영체제와 내용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통해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사업의 최종 목표는 모두를 위한 보편복지사회 구현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망에 더해 특별지원정책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학교 역할 재설정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줄이거나 포기하면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공부’라 규정되는 것에만 올인하는 북한배경청소년이 다른 아이들의 모범으로 부각되곤 한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사회적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리한 계층일수록 상위 서열 대학 진학 기회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설사 명문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그에 걸맞은 노동시장 진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⁵⁾ 북한배경청소년들에게 공부를 통해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 보라고, 노력만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들의 좌절감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크다. 대학에 진학한 북한배경청소년들이 흔히 겪는 좌절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화가나 작가는 돈 벌기 어렵다고 아이들은 일찌감치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한다. 이것이 북한배경청소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님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이 잘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러한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논리로 아이들을 책상에 앉게 하는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가고 싶은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를 함께 고민하는 곳으로 학교가 거듭나야 한다. 북한배경청소년 교육을 위한 지원도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김정원 외(2018),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중단연구(III)」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북한배경청소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 화해 시대에 화해한 당사자로부터 탈출했다는 의미를 지니는 ‘탈북’이라는 용어가 남북 화해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이 범주로 분류되는 이들의 위상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며, ‘북한배경’이라 표현하게 되면 점차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0년 중단연구부터 ‘북한배경청소년’으로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이제껏 ‘탈북청소년’으로 명명되어 왔던 아이들을 ‘북한배경청소년’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 1) 이상은 김정원 외(2018),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중단연구(III)」와 김지혜 외(2019),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중단연구(IV)」의 초6페이지 사례 참조.
- 2) 김정원 외(2015), 탈북청소년 교육 백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2015-09, p. 21.
- 3) 이하의 내용은 김정원 외(2018), 「2주기 탈북청소년교육 중단연구(III)」에서 제시한 정책 제안을 요약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 4) 김정원 외(2015), 탈북청소년 교육백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2015-09, p. 255.
- 5) 김정원(2017), 이제 ‘계층사다리로서의 교육’ 프레임은 폐기할 때가 되었다. 교육비평 40, 218-243.



더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팬데믹의 시대, 멘토링의 범위를 한껏 넓히자

- 2020년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

• 정민호 | 이제여기그너머 기자

교육부가 주최하고 전국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0년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전국의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 및 멘토 교원이 참가한 이번 연수는 탈북학생 배경 특성 이해, 교육지원 정책 안내, 맞춤형 멘토링 사례 공유, 멘토링 계획 수립 안내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2020년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 세부 일정표〉

구분	세부 내용	비고							
1부 (2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학생 교육의 이해 - 정재훈(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팀장) 								
2부 (4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도사례 발표 - 초·중등 탈북학생 지도 교사(택2)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초등</th> <th>중등</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강사</td> <td>서희정(대실초 교사)</td> <td>장현선(대곶중 교사)</td> </tr> <tr> <td>장윤경(군위초 교사)</td> <td>이돈집(삼정중 교사)</td> </tr> </tbody> </table>		초등	중등	강사	서희정(대실초 교사)	장현선(대곶중 교사)	장윤경(군위초 교사)	이돈집(삼정중 교사)
	초등	중등							
강사	서희정(대실초 교사)	장현선(대곶중 교사)							
	장윤경(군위초 교사)	이돈집(삼정중 교사)							
3부 (15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계획 수립 안내 - 안경식(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팀장) 								
4부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의응답 및 담당자 협의(선택) - 지도사례 발표자, 시·도교육청업무 담당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실시간 연수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진행된 연수 중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경기도교육청 연수는 ‘탈북학생 교육의 이해’(정재훈,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팀장), ‘초등 멘토링 지도 사례’(서희정, 대구대실초 교사), ‘중등 멘토링 지도 사례’(장현선, 경기대곶중 교사) ‘멘토링 계획 수립’(안경식,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팀장),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다.

“탈북 배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을”

탈북학생 교육의 이해

정재훈(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팀장)

1부에서는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정재훈 팀장이 ‘탈북학생 교육의 이해’라는 주제로 탈북학생 교육 실태 전반을 소개했다. 그는 탈북학생 교육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2,531명의 학생이 1,266개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탈북학생 재학교에 탈북학생이 한두 명 다니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연수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그 한 명의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요청드리는 것”이라 말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탈북학생의 배경 변화를 가장 먼저 짚었다. 북한이탈주민이 1990년대엔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10년 이후는 국내에 먼저 들어온 가족·친인척의 정보와 물질 지원을 통해 국내로 오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정 팀장은 “탈북학생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며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탈북학생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교 교육과 관련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 부족’을 꼽았다. 이에 학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함에도 대다수 탈북학생은 자신의 신분 배경을 밝히기 꺼려 그로 인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탈북학생은 남북한의 교과용어, 교육제도, 학교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혼란뿐 아니라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교육 경험 차이, 개인별 특성 차이 등에 따라 적응 양상도 천차만별이다. 탈북학생 지도가 정형화된 방식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없고, 그렇기에 교사들의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정 팀장은 탈북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학습지나 예체능 교육, 심리상담, 체험활동, 진로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소개됐다. 불안, 우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개인 상담, 가족 상담, 중국어 상담), 탈북학생 중 특정 분야에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단이 탈북학생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진로상담’이다.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이해하고 직간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정 팀장은 2008년의 경우 탈북학생 학업중단율이 두 자릿수(10.8%)에 달했지만, 탈북학생 멘토링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학업중단율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4년부터 2%에 진입한 통계를 제시하며 “이런 성과는 전적으로 선생님들이 탈북학생 멘토링을 잘해주신 덕분”이라며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지원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너지 효과”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도사례(초등) 발표

서희정(대구 대실초등학교 교사)

대구 대실초등학교 서희정 교사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사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멘토링 방식을 소개했다. 특별히 공동지원 멘토링을 진행한 사례가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공동지원 멘토링은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교과 선생님과 지도했던 담임교사가 함께 멘토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탈북학생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수가 다양해진다. 더불어 대학생 멘토링, 또래 친구 멘토링 등 탈북학생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멘토링 방식이 소개됐다.

서희정 교사는 멘토링을 통해 탈북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그는 학습 지원, 정서심리 지원, 문화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을 그 예시로 제시했다. 특별히 정서적 지원을 할 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적 상담을 할 수 있으며 10~15회 정서심리 지원을 해본 결과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상담에 대한 선입견을 품은 경우가 적지 않아 상담 전 학부모에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탈북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 참여도가 높았다”며 전문 상담을 받을 시 주의할 사항들을 세세하게 공유했다.



▲ 대구 대실초등학교 서희정 교사가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도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이외 다양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자연체험(블루베리 농장체험), 운동 활동(승마체험), 미술체험(교실 벽화그리기) 등이 가능하며,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나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서희정 교사는 “다양한 문화체험은 탈북학생의 부모와 교류하며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준다”며 “탈북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면 멘토링의 효과가 더욱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긍정적 자아관을 점점으로 다양한 시도들”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도사례(중등) 발표

장현선(경기 대곶중학교 교사)

중등 사례는 대곶중학교 장현선 교사가 발표했다. 그는 학생 실태분석과 한두 차례 만남으로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나이, 성별, 가족관계, 성격, 장애 희망, 학습수준, 출생지, 입국 연도 등)가 있는데 이것만으로 학생을 지도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효과적인 멘토링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질문만으로 알 수 없는 것까지 알아야 학생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멘토링 경험을 공유했다.



▲경기 대곶중학교 장현선 교사가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도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멘티 학생은 겉으로는 씩씩했지만, 탈북 과정에서 생긴 정서적 불안감이 있었다”며 “학생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긍정적 자아관 형성,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멘토링을 진행했다.

멘토링을 통해 멘티 학생은 기초학습을 하면서 탈북학생으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신청했고, 자서전 쓰기 활동, 독서 멘토링 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리고 멘토링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관람하게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시각디자인 전공을 하고, 추후에 본인이 무대 디자인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선생님을 꼭 초대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에 장현선 교사는 “멘티 학생이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탈북학생 스스로 진로와 역할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자신이 진행한 멘토링의 지향점이었음을 강조했다.

“상황과 특성에 맞춰, 멘토링의 의미 더 넓혀 가야”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계획 수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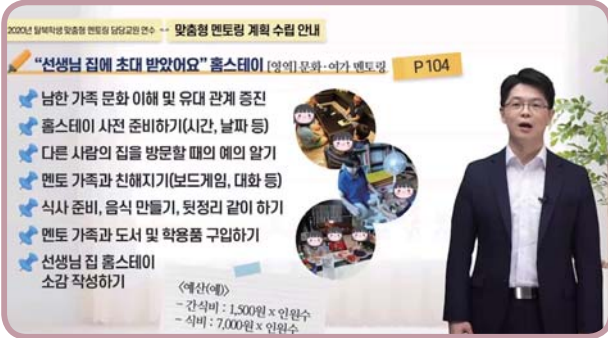
안경식(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팀장)

3부는 안경식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팀장이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의 목적과 매뉴얼 등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교사들이 멘토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가는 시간이었다.

먼저 안 팀장은 탈북학생 멘토링의 상황과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멘토링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멘토링은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멘티의 상황에 맞추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담당교사가 학생의 직접 멘토가



되어야 하지만, 또래 친구, 각 교과 선생님 등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며 이 멘토링 프로그램의 전체 기획자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안경식 팀장이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어 그는 탈북학생 멘토링 사례와 다양한 활동, 관련 자료를 모아놓은 ‘탈북학생 멘토링 매뉴얼’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멘토링 활동으로 학습지원, 홈스테이, 문화·여가 활동, 봉사활동 등을 소개하는 한편 비대면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멘토링 예산 계획과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도 이어졌다. 예산 집행의 경우 교육청과 학교 예산 사용 기준을 확인하고,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도 문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안 팀장은 “교사들이 학생에게 관심을 두는 만큼 멘티 탈북학생도 분명 성장할 것”이라며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을 격려했다.

담당교원 연수도 비대면 맞춤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유튜브 채널 ‘KEDI TV’ 비실시간 송출 외에 실시간으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내 탈북학생 멘토교사들에게 멘토링 사업을 안내하고 예산집행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안경식 팀장은 “이번 연수가 특별히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질문과 참여가 많았다”며 “채팅창을 이용한 소통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더 정리된 설명이 오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안경식 팀장이 멘토링 연수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연수참석자 전원에게 교재(탈북학생 지도 교사용 매뉴얼 등)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유튜브 채널 ‘KEDI TV’를 통한 연수(교육청별 1~2주)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진행했다(전라북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1단계일 때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합연수를 실시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콜센터(043-530-9482)와 홈페이지(www.hub4u.or.kr)를 통해 상시 지원하고 있다.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도의 어려움?!

'찾아가는 진로상담'이 있습니다!

- '탈북학생 찾아가는 진로상담' 사업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탈북학생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맞춤형 상담을 통해 탈북학생의 진로와 진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탈북학생의 진로·진학에 전문성을 갖춘 진로상담교사가 탈북학생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한다.

탈북학생은 진로를 결정하고 진학하는 과정에서 남다른 어려움을 겪는다. 우선 진로와 진학에 관한 누적된 정보가 빈약하고,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에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탈북학생의 진로·진학 지도를 위해 찾아가는 진로상담에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과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진로상담교사를 매칭한다. 진로상담교사는 탈북학생의 학교나 거주지에 방문해서 1대1로 상담을 진행한다. 보통 1회에서 6회 정도 상담이 진행되는데, 상황에 맞추어 몇 차례 더 상담이 진행되기도 한다.

올해는 전국 8개 시도 탈북학생 33명을 대상으로 56회의 진로상담을 실시하였다.

전반적인 지원부터 진로 계획 수립까지 폭넓은 진로지도

탈북학생들의 진로상담은 한국사회와 학교생활 적응 단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진학과 취업, 진로 결정에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한국사회 초기 적응 단계에 있는 경우 심리지원과 사회역량 지원 등 기초적인 지원이 먼저 제공된다. 학생이 차츰 안정되면 이후 진로를 결정하고 목표 경로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상담이 이어진다.

2020년 탈북학생 찾아가는 진로상담에 참여한 김봄 학생(가명, 중2)은 진로상담교사와의 첫 상담에서 아버지와 겪은 불화와 가출 경험을 털어냈다. 이후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하며 적성 및 흥미 분야를 탐색하고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현재 김봄 학생은 연기 지도를 받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연기 공부를 하고 있다. 상담을 진행했던 이승희 진로상담교사는 김봄 학생과 처음 상담을 시작했을 때 진로진학과 관련한 내용보다는 심리상태와 생활습관, 주변 관계를 주로 이

야기했다고 한다. 이런 상담을 통해 학생이 겪는 어려운 이슈들을 먼저 다룬 뒤 안정감을 찾았을 때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탈북학생 특성에 맞는 대학진학 지원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중학교 2학년부턴 고등학교 3학년 탈북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적인 진로 상담부터 학습 계획 지도까지 이뤄진다. 특히 고등학교나 대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 진로 목표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생에게는 매우 구체적인 지도가 이루어진다.



▲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진학 지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탈북학생 찾아가는 진로상담에 참여한 김여름 학생(가명, 고3)은 학교에서 탈북 배경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그의 탈북 배경을 알지 못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로 자기소개서 준비와 진학 원서 작성도 7월에야 시작하는 상황이어서 자칫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 지원을 놓칠 수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겨울방학 때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받아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특별전형 대상임을 알려 특별전형 지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송가을 학생(가명, 고3)은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전공

외 다른 전공에 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서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윤겨울 학생(가명, 고3)은 자기 소개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통해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지원 할 때 자신의 실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제출 서류 준비가 어려워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고, 서류 준비를 살펴줄 진로교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노력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올해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진행한 진로상담교사들과 함께 사례협의회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진로상담단으로 참여한 진로상담교사들은 올해 진행한 진로상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며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더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 진로상담단은 “더욱 구체적이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진로상담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아직은 진로상담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런 사례협의회를 통해 진학, 취업 정보들을 하나하나 축적해 갈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에 협의회에 참석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일선 학교의 탈북학생 진로진학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진로상담 사례협의회 모습. 진로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있다.

올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 찾아가는 진로상담 신청 절차와 신청서 양식을 개선하여 더 효과적으로 학생과 진로상담교사의 연계가 가능하게 했으며, 상담 직후 담임교사 또는 보호자와 상담결과를 공유하는 연계 지도도 강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참가 학생 후속 인터뷰와 진로상담단 사례협의회를 진행하며 더 나은 진로진학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통해 탈북학생이 겪는 진로·진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게 될 날을 더욱 기대하게 된다.





"계획하지 않고, 서로의 느낌대로 움직였어요"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HOPE



• 조경재 | 작가, HOPE 멘토

• [인터뷰] 김지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KEDI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2년 동안 HOPE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에 앞서 먼저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경재 안녕하세요. 시각예술 작가 조경재입니다. 주로 사진에 기초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에 독일로 가서 순수 예술을 공부하다가 2019년에 돌아왔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 작가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EDI 작품 및 전시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재능기부 활동에 지원하셨습니다. HOPE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조경재 독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을 때, 예술이 대중화되지 못한 한국과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한국에 들어와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작가 활동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은 모두 교육 쪽에 써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HOPE 프로그램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지원했어요.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KEDI 학생과 2년 가까이 만나고 계십니다. 탈북학생인 겨울이(가명)와의 첫 만남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경재 겨울이를 처음 봤을 때 순발력이 아주 좋고 감각적인 학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이나 질문에 대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작품 감상을 이야기 하는것도 남달랐어요. 물론, 한없이 순수한 면도 있어 학생다운 면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탈북학생이기 때문에 더 어렵거나 다르게 생각한 것은 없었어요. 그냥 조건이 조금 다를 뿐이기에 다른 학생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KEDI 학생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해주신다면요?

조경재 저와 겨울이는 **경험하기, 계획하지 않기, 자존감 높이기 이렇게 세 가지의 활동 목표를 가지고 HOPE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겨울이의 가족 관계, 생활환경, 입국 과정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겨울이가 일반 학생보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온천, 파주 출판단지, 헤이리 예술마을, 인근 뮤지엄 등을 다녔고, 올해는 활동 반경을 더 넓혀 제 작업실이 있는 인천에도 왔

습니다. 같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에 큰 계획을 세워 움직이기보다는 그때마다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이거 만들면 예쁠 것 같다'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중 하나 바로 표지판입니다.



▲ 겨울이와 길을 가다 즉흥적으로 만들게 된 길거리 표지판. 조경재 작가는 겨울이가 아이디어를 내면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 가구 및 생활소품을 파는 이케아에 갔을 때는 실제 방처럼 꾸며진 쇼룸을 배경으로 비디오 작업을 했습니다. 마치 거기에서 사는 듯한 모습으로 찍었는데, 재미있는 경험이었는데 후에는 친구를 데려와 함께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 이케아에서 쇼룸을 배경으로 실제 생활하는 것처럼 사진을 찍는 작업을 했다.



KEDI 겨울이와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조경재 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 정말 아쉬웠습니다. 대신 지인의 미술학원에서 만나 같이 작업하고 놀았습니다. 미술을 할 때 결과물보다는 실제 자기가 만든 것을 보고 고찰한 후에 언어(말)로 표현하고 그것을 다시 미술로 표현하는 반복적 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행동이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외부 활동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안에서 만나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KEDI 교육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겨울이와 한 활동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순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경재 사실 활동 자체보다는 그 시간에 주고받은 대화가 더 기억에 남습니다. 겨울이와 만나면 제가 가진 고민을 자주 공유하는데, 제가 하는 작업, 인생에 대한 고민 등을 이야기하면 겨울이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겨울이가 학교 공부에 흥미를 느끼진 못하지만(웃음), 사물이나 상황을 보는 눈이 매우 예리합니다. **겨울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HOPE 프로그램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 여러 작가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고민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KEDI 선생님의 관심으로 겨울이 2년 동안 많이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조경재 초반에는 많이 움크려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밥 먹는 것조차 잘 결정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의사 표현을 잘 합니다. 저랑 친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성격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1~2년 사이에 아주 당당해졌고, 성장한 걸 느낍니다. 굉장히 멋있어졌습니다(웃음).



KEDI 선생님께서도 HOPE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서 변화된 부분이 있으셨나요?

조경재 겨울이가 반응이 좋은 친구여서 저도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는 잘 반응을 해주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까지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다고 하면, 겨울이와 같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제가 한 번 공동작업을 제안했는데, 겨울이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웃음).



KEDI 앞으로 HOPE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더 하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요?

조경재 지금의 1:1 방식을 확장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한 두 명 정도 멘티가 더 있어서 학생들끼리 협업하는 활동을 하고, 그 과정을 제가 봐주면 더 흥미로운 활동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멘토-멘티의 1:1 관계 외에도 멘티들끼리 연결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KEDI 멘티 학생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나요?

조경재 겨울이가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 유학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서점에 가서 유학 갈 나라를 함께 찾아보고, 유학 생활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겨울이가 해외에 가면 더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응원해 주고 싶습니다. 유학 가면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씩씩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 조경재 작가와 겨울이 모습.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쉽지 않았지만, 자주 연락하며 고민을 나누었다.



KEDI 마지막으로 앞으로 HOPE 프로그램에 참여할 재능 기부자 선생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조경재 HOPE는 지식전달 프로그램이 아닌 **학생과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관심사를 매개로 학생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HOPE를 통해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교육적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학생과 천천히 교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을 가르쳐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그림을 보거나 생활 속에서 미술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방향이 좋습니다. 건축 분야라고 하면 건축을 하는 법보다는 좋은 건물을 보거나, 햇빛을 느끼면서 이것 또한 건축의 일부분임을 학생과 함께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면서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HOPE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티와 함께 성장한 3년

한 걸음, 두 걸음 너와 함께 걷고 뿜 꿈 길



- 최찬혁 | 인천동막초등학교 교사
- [인터뷰] 김지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KEDI 안녕하세요. 2020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초등부문 최우수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선생님 본인과 멘티 학생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찬혁 안녕하세요. 인천동막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9년 차 교사 최찬혁입니다. 여러 명의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송천초등학교에서 6년간 근무하며 탈북학생에 대한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탈북학생, 탈북 학부모님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다양한 연수를 들으며 탈북학생과 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탈북학생을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해 성장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멘티인 희망이(가명)는 솔직한 학생입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라 첫 만남은 많이 어색했지만, 자주 만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얘기해주어 점점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깊은 속내까지 털어놓을 정도로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KEDI 선생님께서는 3년째 성장 멘토링(VAS)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최찬혁 저의 첫 멘토링은 2013년 학급 탈북학생의 맞춤형 멘토링이었습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송천초등학교에서 총 3번의 멘토링을 했는데, 늘 '이제 본격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은 시점에 멘토링 활동 기간이 끝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 겨울방학 때 최은미 장학관님(당시 교감선생님)의 부탁으로 희망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예비 중학생이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했던 희망이에게 초등 교육과정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학교가 달라도 진행할 수 있는 성장 멘토링을 신청했습니다.



KEDI 멘토링을 진행하시며 주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최찬혁 저는 '진로 탐색기-진로 선택기-진로 확립기'라는 장기적인 활동목표를 세워 **희망이가 현재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모습을 꿈꿀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1년 차에는 한국문화를 경험하며 다양한 직업을 소개했고, 3년 차 때는 진로에 관한 구체적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진로와 꿈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며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의기소침해져 있을 때는 함께 운동하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KEDI 3년간 희망이와 멘토링을 하며 1박 2일 여행, 스케이트 타기, 마라톤 대회, 등산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것인가요?

최찬혁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을 꼽는 것이 참 어렵지만, 굳이 하나를 꼽는다면, 10km 마라톤대회입니다. 다른 활동의 경우 특별히 힘이 들거나 어렵지 않았는데 마라톤대회는 저와 희망이 둘 다 첫 ‘도전’이었고, 희망이의 한쪽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당일 힘들어하는 희망이를 보며 ‘그만 뛺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였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해낸 마라톤이기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 최찬혁 선생님과 희망이가 10km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 메달을 받았다.



KEDI 마라톤 등 스포츠 활동으로 멘토링을 많이 진행하셨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멘토링 활동에 제약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최찬혁 네 맞습니다. 2년 동안 탁구, 배드민턴, 볼링, 스케이트, 스키, 레프팅, 등산, 마라톤(10km) 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성취감과 끈기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스포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고민 끝에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희망이도 흔쾌히 응해주었고, 산책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와 앞으로의 미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최찬혁 선생님과 희망이. 산책을 하며 미래, 꿈에 대해 많이 의견을 나누었다.



KEDI 3년 동안 탈북학생을 멘토링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 텐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최찬혁 2년 차 때 희망이가 많은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지만, 학습이나 진로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에게 희망이를 소개해주시고, 멘토링 경험도 많으신 최은미 장학관님을 찾아갔습니다. 장학관님은 희망이의 성격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추천해주셨습니다. 곧 희망이의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해 희망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고, 다양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병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끔 멘토링을 진행하다 벽에 부딪히면 주변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KEDI 선생님께서는 희망이의 배경 이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프로그램이 선생님의 지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최찬혁 연변과 단둥을 거치는 탈북 루트 체험 연수가 저의 멘토링 활동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추운 겨울에 연변과 단둥을 거치면서 탈북학생이 겪었을 이 과정이 정말 힘들었겠다고 생각했고, 태국의 메콩강을 견학하며 탈북민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Human Rights Watch'(국제인권감시기구) 관계자 및 탈북민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걸도는 탈북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KEDI 탈북학생 성장 멘토링 진행 경험이 교사로서의 성장도 도움이 되었나요?

최찬혁 물론입니다. 최근에 교사로서 제 정체성이 많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습 내용만 주고받는 시간이 많아져 컴퓨터, 책과 같은 학습 도구와 교사인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멘토링을 통해 희망이가 점차 긍정적이고 밝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교사란 학습 지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이가 아니었다면 제 교직관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 최찬혁 선생님과 희망이가 등산을 한 모습. 최찬혁 선생님은 희망이와 함께 멘토링을 하며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했다.



KEDI 멘토링을 진행하시면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게 요청하고 싶었던 것은 없으셨나요?

최찬혁 탈북학생끼리 서로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와 멘티는 평소 만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까워질 기회가 많지만, 멘티인 탈북학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을 또래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앞으로 그러한 시간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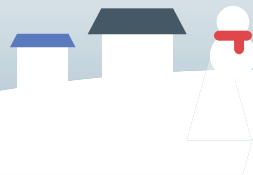


KEDI 선생님의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선생님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담당하실 선생님들께 격려와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찬혁 멘토링을 하는 동안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나기 어려울 때도 있었고, 활동하면서 멘티에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삶을 나누며 저와 희망이 모두 성장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단시간의 변화와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꾸준히 활동한다면 분명 모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을 하시는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의 충분한 능력을 믿습니다.



▲ 최찬혁 선생님과 희망이의 등산 모습. 최찬혁 선생님은 꾸준히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희망이의 전인적 성장을 응원했다.





몸은 멀지만 마음은 가까이,

함께 성장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가정

- <2020년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 및 발표회>
<2020년 제11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 현장 스케치

• 백영재 | 이제여기그너머 기자

지난 12월 11일(금),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0년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 및 발표회>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열렸다.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우수사례들을 학교 현장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실시된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는 그동안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에 기여해 왔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유튜브 채널 'KEDI TV'를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중앙단위의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개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4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이 수여되었고, 개인 부문 우수상 수상자 4명과 단체 부문에서 수상한 2개교에는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이 수여되었다.



▲ 시흥매화고등학교 남현욱 교사(우)가 상장과 꽃다발을 들고있다. 남현욱 교사는 개인 중등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역량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을 지원하는 일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탈북학생 개개인을 위해 묵묵히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구섭 전남대학교 교수는 심사 총평을 통해 ‘학교 안팎을 연계한 멘토링 활동’, ‘코로나 상황

에서 활용된 1대1 비대면 멘토링 활동’, ‘학생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 지도’와 같은 우수 사례들의 특성을 제시했다. 나아가 강 교수는 “탈북학생 교육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생각과 경험이 정기적으로 공유되는 가운데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며 탈북학생 교육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지원과 학교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시상식 이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개인 초등부문에는 송명희 교사(송우초등학교)와 최찬혁 교사(인천동막초등학교)가, 개인 중등부문은 채용기 교사(여주여자중학교)와 남현욱 교사(시흥매화고등학교)가 발표했다.

첫 번째로 발표한 송명희 교사는 「THE 도! 깨! 비!」 사례 발표를 통해 ‘도전 깨움 비전’이라는 핵심 슬로건을 중심으로 1년 동안 탈북학생과 함께한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소개했다. 최찬혁 교사는 성장멘토링(VAS)을 통해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멘토링을 통한 탈북학생과 교사의 동반 성장 경험을 전했다.



▲ 인천 동막초등학교 최찬혁 교사가 수상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하나의 사랑이 둘 그리고 셋, 넷으로」 사례를 발표한 남현욱 교사는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탈북학생 한 명과의 인연이 한 명에서 두 명,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맺어지는 이야기를 전했다. 남 교사는 하나둘학교 파견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링 활동뿐만 아니라 탈북학생의 일상에도 자연스럽게 다가

갈 수 있었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채용기 교사는 탈북 학생의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멘토링 사례를 발표했다. 특별히 탈북학생의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키우기 위해 참가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영상을 준비해 감동을 주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김지수 소장은 발표 총평을 통해 "발표를 보면서 탈북학생들을 향한 선생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전해져 감동적이었다"며 탈북학생들의 원활한 한국사회 적응과 교육 현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비쳤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교육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 한다.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에는 다양한 배경,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우수 교육 사례들이 축적되어 탈북학생 교육의 본보기가 됨은 물론 탈북학생 교육 관련 연구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뒤이어 <제11차 탈북학생 교육포럼>이 동일한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 'KEDI TV'를 통해 비대면으로 개최됐다. 탈북학생의 교육 이슈와 관련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교원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탈북학생 교육포럼>은 해마다 다양한 대안이 도출된다. 이번 포럼 주제는 '탈북학생의 가정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모색'으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발표와 토론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발표에 앞서 김지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전국 탈북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연구하는 포럼"이라며 본 행사를 소개했다. 이어 김 소장은 "최근 몇 년간 고민한 것은 가정과의 연계"라며 "탈북학생과 학교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를 고민하면서 부모와 학생의 적응과 성장, 나아가 교사와 주변 사람과도 함께 성장하는 지원과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나온 의견과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을 전했다.

포럼은 먼저 김혜영 남북통합문화센터 상담사의 「탈북학생 지원 방향 모색: 가족 지원을 기초로 학교와 발을 맞추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로 시작되었다. 김혜영 상담사는 2년에 걸친 탈북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안정된 가정 상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탈북학생 부모나 가족을 위한 자녀교육 프로그램과 심리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 김혜영 남북통합문화센터 상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있다.

김혜영 상담사의 발표에 이어 도래울중학교 이승희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탈북학생 가정배경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 필요성: 탈북학생 진로상담 사례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승희 상담교사는 "탈북학생 교육 및 상담 활동 시 부모 상담도 병행하는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탈북학생의 가정 배경을 고려한 유관기관과 학교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가양초등학교 김선경 통일전담교육사는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은 탈북학생의 복합적인 환경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며, 학교 현장 속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구하나센터 조재희 센터장은 발개돌이학교의 탈북학생 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현실적인 탈북학생의 교육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 (위쪽 왼쪽부터) 공존플랜 윤상석 소장,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정재훈 팀장(사회), 가양초등학교 김선경 통일전담교육사, (아래쪽 왼쪽부터)대구하나센터 조재희 센터장, 상현중학교 조창완 교사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공존플랜 윤상석 소장은 원활한 탈북학생의 가정환경을 고려한 교육지원을 위해서는 "유관기관들의 상호협조와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며 각 시도교육청과의 구체적인 협력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상현중학교 조창완 교사는 구체적인 탈북학생 교육지원 방안으로 '통일교육전담사 확충', '권역별 지원체제 구축', '직업 교육과 진로 교육 강화',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머리를 맞댄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센터활동소식



2020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협의회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20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협의회」가 2020년 10월 27일(화)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담당자 협의회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통일부(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등 총 3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0년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보고와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관 소개(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등)를 마친 뒤, 2020년 시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1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과 코로나19에 따른 탈북학생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행사명** 2020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협의회
- **일 자** 2020년 10월 27일(화)
- **장 소** H호텔 세종시티
- **대 상** 교육부, 시도교육청, 통일부(하나원), 남북하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업무담당자 등
- **내 용** '20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현황 점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성과 보고,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관 소개, '21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 협의 등
- **문 의** 김지나 연구원(043-530-9485 / jina@kedi.re.kr)



제11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 개최

지난 2020년 12월 1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의 가정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1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 담당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담당자, 발표자는 현장(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 참석하고, 토론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각 시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를 비롯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관심 있는 참석자는 유튜브 채널 KEDI TV로 실시간 중계를 시청하며 채팅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 발표자들은 심리상담(가족상담), 진로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탈북학생 가정배경 지원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으며, 토론자들은 화상으로 참여하여 탈북학생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를 벌였습니다. 참석자는 유튜브 채팅창에서 질의하고,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발표자, 토론자가 답변하였습니다.



- **행사명** 제11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
- **일 자** 2020년 12월 11일(금)
- **장 소** 유튜브 KEDI TV(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 홀)
- **방 법** 온라인 중계
- **대 상**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담당자, 탈북학생 담당 교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 **내 용** 탈북학생의 가정환경을 고려한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모색관련 주제 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
- **문 의** 김지나 연구원(043-530-9485 / jina@kedi.re.kr)

2020년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 및 발표회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여 시상식 및 발표회를 2020년 12월 11일(금)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는 탈북학생 교육 관계자의 사기 진작 및 탈북학생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공모를 통해 많은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가 발굴되었고, 학교 현장으로 파급되어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개인 8개 사례, 단체 2개 사례 총 10개 사례를 시상하였습니다. 최우수상 수상자 4명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우수상 수상자 4명 및 2개교에게는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을 수여하였습니다.



〈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부문별 수상자 〉

▶ 개인 부문

구분	수상자(無順)		훈격
초·중·고	최우수상	광주 송명희(광주송우초등학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인천 최찬혁(인천동막초등학교)	
	우수상	대전 오대석(대전지족초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장상
		대전 정의숙(대전원평초등학교)	
중·고	최우수상	경기 남현욱(시흥매화고등학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경기 채용기(여주여자중학교)	
	우수상	서울 김영옥(영등포공업고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장상
		경기 신기용(용인삼계고등학교)	

▶ 단체 부문

구분	학교명		훈격
학교	우수상	인천 인천동방초등학교	한국교육개발원장상
		충남 드림학교	

- 행사명 2020년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 및 발표회
- 일 자 2020년 12월 11일(금)
-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브람스 홀
- 방 법 온라인 중계(유튜브 KEDI TV)
- 내 용 시상, 우수사례 발표
- 문 의 안우림 연구원(043-530-9486 / eduan@kedi.re.kr)

제9기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수료식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성장 가능성과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탈북학생 37명(HOPE 9기)과 각 분야 전문가 멘토 37명이 1:1 결연을 맺고 2020년 12월까지 맞춤형 교육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제 9기 HOPE 수료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라 온라인 중계로 실시되었고, 수료증 수여식, 교육활동 사례발표 및 공유, 소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명 제9기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수료식
- 일 자 2020년 12월 12일(토)
- 장 소 서울 상상캔버스
- 방 법 온라인 중계
- 대 상 HOPE 9기 학생, 재능기부자
- 내 용 수료증 수여, 교육활동 사례공유 및 발표, 소감 발표 등
- 문 의 주승아 연구원(043-530-9484 / jsa31@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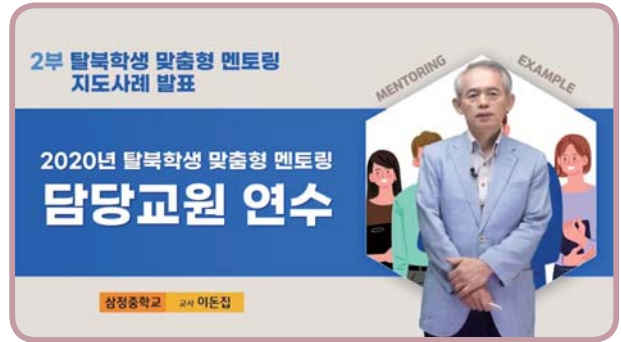
2020년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 실시

교육부가 주최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 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실시간을 포함한 온라인 연수로 진행하였습니다. 탈북학생 멘토링 담당 교사(업무담당자, 담임교사, 멘토교사 등)를 대상으로 하며 탈북학생 배경과 특성의 이해, 탈북학생 멘토링 지도사례,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멘토링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상담 콜센터(043-5309-482,490)와 홈페이지(www.hub4u.or.kr)를 통해 상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 실시 현황 〉

시도	연수방법	연수일자(기간)	플랫폼(장소)
1 인천	비실시간	09.09.(수)-09.20.(일)	유튜브(KEDI TV)
2 광주	비실시간	09.09.(수)-09.20.(일)	
3 세종	비실시간	09.09.(수)-09.20.(일)	
4 전남	비실시간	09.09.(수)-09.20.(일)	
5 경북	비실시간	09.09.(수)-09.20.(일)	
6 서울	실시간	09.16.(수) 15:00	ZOOM
	비실시간	09.21.(월)-09.27.(일)	유튜브(KEDI TV)
7 경기	실시간	09.17.(목) 14:00	ZOOM
	비실시간	09.18(금)-09.29.(화)	유튜브(KEDI TV)
8 충북	실시간	09.17.(목) 15:00	ZOOM
	비실시간	09.18(금)-09.29.(화)	유튜브(KEDI TV)
9 강원	비실시간	09.16.(수)-09.27.(일)	유튜브(KEDI TV)
10 울산	비실시간	09.21.(월)-09.25.(금)	
11 부산	비실시간	09.21(월)-10.08.(목)	
12 경남	비실시간	09.21(월)-10.08.(목)	
13 제주	비실시간	09.21(월)-10.08.(목)	
14 대전	비실시간	09.21(월)-10.08.(목)	
15 대구	비실시간	10.12.(월)-10.16.(금)	
16 전북	집합연수	07.28.(화) 15:00	전라북도교육청
17 충남	집합연수	11.13.(금) 15:00	아산 온양제일호텔



- 연 수 명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
- 주 최 교육부
- 주 관 각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연수기간 2020.07.~11.
- 연수대상 탈북학생 멘토링 담당 교사 (업무담당자, 담임교사, 멘토교사 등), 탈북학생 재학교 관리자 및 관심 교원 등
- 연수내용 탈북학생 배경·특성 이해, 탈북학생 교육 현황 및 지원 정책 소개, 학교급별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도사례 발표 등,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방법 안내
- 문 의 함희재 연구원(043-530-9490 / hhjoy@kedi.re.kr)



탈북학생 교육지원 유관기관 방문 협의회 실시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개선 방안 협의 및 유관기관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를 방문하여 유관기관 업무 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탈북학생 교육지원과 관련된 양 기관의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행사명**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 협의회
- **일 자** 2020년 10월 16일(금)
- **장 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내 용**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개선 방안 및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 협의
- **문 의** 김지나 연구원(043-530-9485 / jina@kedi.re.kr)

2020년 심리상담 지원 사업 결과보고회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0년 심리상담 지원 사업 결과보고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 사업 결과보고회는 지역 상담기관 상담사의 탈북학생 상담 경험을 공유하여 향후 현장 반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결과보고회에서는 2020년 탈북학생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 상담사, 상담기관 관계자, 교육부 담당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먼저 현장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가족상담과 중국어상담 사례 발표를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사례에 대한 컨설팅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북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상담사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행사명** 2020년 심리상담 지원 사업 결과보고회
- **주 최** 교육부
- **주 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2020년 12월 11일(금) 10:00 ~ 11:30
- **대 상** 지역 상담기관 탈북학생 심리상담사 및 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 **문 의** 함희재 연구원(043-530-9490/hhjoy@kedi.re.kr)

💡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 개발 중간보고회**

2020년 10월 23일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 개발 사업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올해 초 개발된 「돋움한국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 활용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발표하고 중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와 집필진은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가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기반 지식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수업 활용 파워포인트와 수업 활동 방법에 대한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돋움한국어」의 교재, 보조자료, 지도서가 하나의 한국어 교육자료 패키지로서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 **행사명**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 개발 중간보고회
- **일 자** 2020년 10월 23일(금)
- **장 소** 삼경교육센터
- **대 상**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돋움한국어 집필진
- **내 용**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와 수업 활용 파워포인트 자료 내용 발표 및 검토
- **문 의** 박진아 연구원(043-530-9489 / pjamms@kedi.re.kr)

💡 **2020년 찾아가는 진로상담 사례협의회(1, 2차)**

탈북학생 찾아가는 진로상담 사업의 일환으로 진로상담단 사례협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사례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했습니다. 사례협의회에 참석한 진로상담교사들은 2020년에 각자 맡은 찾아가는 진로상담 사례 중 주목할 만한 사례를 소개하고 진로진학상담 관련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어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 **행사명** 찾아가는 진로상담 사례협의회
- **일 자** 1차) 2020년 10월 15일(목)
2차) 2020년 10월 28일(수)
- **장 소** 1차) 온라인 플랫폼
2차) 호텔페이토
- **대 상** 2020년 찾아가는 진로상담에 참여한 진로상담단
- **내 용** 탈북학생 진로진학 상담 사례 공유, 탈북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 방안 협의
- **문 의** 김지나 연구원(043-530-9485 / jina@kedi.re.kr)

💡 2020학년도 성장 멘토링(VAS) 교사협의회(1, 2, 3차)

2020학년도 성장 멘토링(VAS) 활동을 돌아보고 멘토교사 간 서로 격려하며 탈북학생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하기 위해 성장 멘토링(VAS) 교사협의회를 진행했습니다.

성장 멘토링 멘토교사 협의회는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총 20명의 멘토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올해 교사협의회에서는 멘토링에 대한 사례 공유와 활동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의 제약이 많았음에도 멘토교사들은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혼합하여 멘토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 이번 교사협의회는 2020학년을 돌아보며 2021학년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행사명 2020학년도 성장 멘토링(VAS) 교사협의회 (1, 2, 3차)
- 일 자 1차) 2020년 11월 06일(금)
2차) 2020년 11월 13일(금)
3차) 2020년 11월 17일(화)
- 장 소 온라인(ZOOM)
- 대 상 2020학년도 성장 멘토링(VAS) 참여 멘토교사
- 내 용 2020년 성장 멘토링 운영 결과 공유 및 토론,
2021년 성장 멘토링 운영 계획 협의
- 문 의 박진아 연구원(043-530-9489 / pjamms@kedi.re.kr)

2021년에도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계속됩니다.

- [원격연수]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제”(15차시)를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에도 지속되는 “심리상담 지원”,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찾아가는 진로상담” 등은 공문과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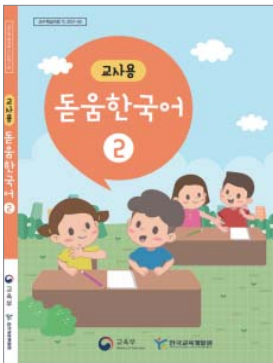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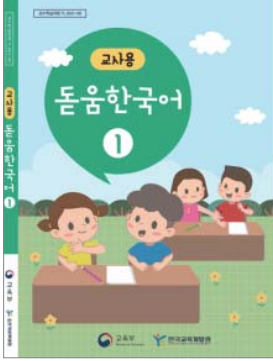
※ 탈북학생 교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자료,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043-530-9481~2)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센터발간자료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1권, 2권)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돋움한국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제작된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돋움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에 대한 설명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차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학습자의 수준과 눈높이를 고려하여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교사가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는 교재의 내용과 함께 음원, 수업용 단어카드, 수업 활용 파워포인트 등의 보조 자료가 함께 구성된 하나의 완결된 교재 패키지입니다. 지도서가 필요하신 경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자료명 돋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1권, 2권)
- 대 상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담당 한국어 교원
- 내 용 「돋움한국어」 교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 문 의 박진아 연구원(043-530-9489 / pjammers@kedi.re.kr)

2020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



「2020년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은 <2020년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 공모>의 수상작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탈북학생 교육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들의 그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hub4u.or.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명 2020년 제11회 탈북학생 교육 우수사례집
- 대 상 탈북학생 지도 교사 및 교육 기관
- 내 용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우수사례(개인, 학교)
- 문 의 안우림 연구원(043-530-9486 / eduan@kedi.re.kr)

